천전리 銘文을 통해서 본 신라의 초기불교정책
-울산지역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강영경(숙명여자대학교)

Ⅰ. 머리말
Ⅱ. 연대추정이 가능한 명문의 내용
Ⅲ. 천전리의 공간적 성격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천전리의 명문은 1970년 동국대학교 문명대교수에 의해 발견된 이후 명문의 판독과 해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명문들이 왜 이곳에 새겨져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발표는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명문이 새겨진 공간과 지역에 주목하면서 신라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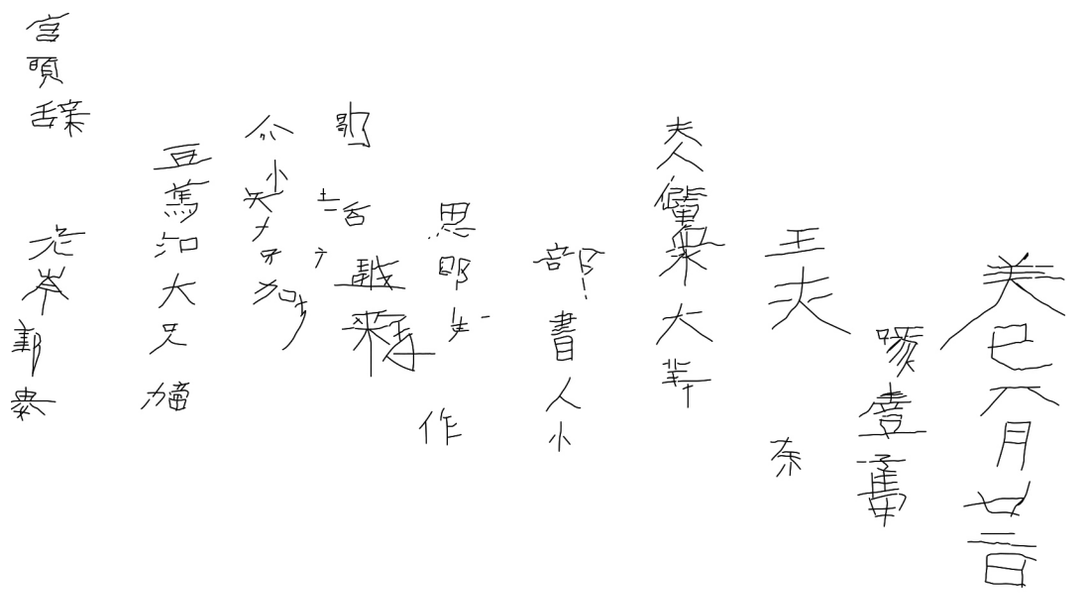
1) 문명대, 1973,「울산의 선사시대 암벽각화」,『문화재』7, 문화재관리국.
황수영, 1976,『한국금석유문』, 일지사.
황수영·문명대, 1984,『반구대 : 울주암벽조각』, 동국대학교 출판부.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며 天神숭배와 관련되고 인면은 주술사로, 마름모는 여성의 생식기로서 생산과 재생의 性을 상징하며 기타 기하문은 토기의 기하문과 관련하여 곡물저장의 풍요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림문자로서 신과 교통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김용선, 1979,「울주 천전리 서석의 명문의 연구」,『역사학보』81, 역사학회.
이문기, 1983,「울주 천전리서석 원·추명의 재검토」,『역사교육논집』4,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문경현, 1987,「울주 신라 서석명기의 신검토」,『경북사학』 10.
문명대, 1989,『한국조각사』, 열화당. 7쪽에서 서석곡은 사탁부의 성지이며 갈문왕의 권력기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관, 1990,「신라 상대 지증왕계의 왕위계승과 박씨왕비족」,『동아연구』2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동원, 1993,「신라 중고 금석문연구」,『국사관논총』 42, 국사편찬위원회.
武田幸男, 1993,「蔚州 書石における 新羅葛文王一族」,『東方學』85.
김창호, 1995,「울주 천전리 서석에 보이는 신라의 원시신앙문제」,『향토문화』9·10합집, 향토문화연구회.
송화섭, 1996,「한국 암각화의 신앙의례」,『한국의 암각화』, 역사민속학회, 한길사.
전호태, 1996,「울주 대곡리 천전리 암각화」,『한국의 암각화』, 역사민속학회, 한길사.
이우태, 1997,「울주 천전리 서석 원명의 재검토」,『국사관논총』78, 국사편찬위원회.
박희택, 2001,「고고자료에 나타난 불교공인 이전의 신라의 지방통치」,『불교고고학』1.
주보돈, 2002,『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김두진, 2005,『금석문을 통한 신라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호, 2007,『고신라 금석문의 연구』, 서경문화사.
박남수, 2008,「울주 천전리 서석명에 나타난 진흥왕의 왕위계승과 입종갈문왕」,『한국사연구』141, 한국사연구회.
문명대, 2010,「울산 반구대 천전리 암각화」,『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청동기시대 韓부족의 번창과 번영의 기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태양신숭배제단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신라왕실의 제단, 화랑도의 성지로 재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배, 2010,「천전리암각화의 한국사에서의 의의」,『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선사인과 신라인의 명산대천의례의 의식세계가 유사했다고 보았다. 가면과 사슴은 儀式의 장면으로 보았다.
이융조, 2010,「천전리바위그림의 고고학적 의의」,『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강삼혜, 2010,「천전리암각화의 기하학적문양과 선사미술」,『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68쪽에서, 천전리 농경민들은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풍요와 관련된 본래 대상을 대신하여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공감적 감염적 주술적 사유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김은선, 2010,「천전리암각화 동물상의 도상학적 의미와 양식-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이는 청동기시대 지배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신성한 의례의 공간이라고 하였다.
김현권, 2010,「천전리암각화의 행렬도와 고구려벽화」,『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천전리암각화의 행렬도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선사시대미술에서 고구려미술의 영향 속에서 6세기 이후 회화성 짙은 미술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현주, 2013,「신라 중고시기 왕실여성의 칭호-울주 천전리 서석명문을 중심으로-」,『신라사학보』27, 신라사학회.

의 초기 불교정책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천전리 서석곡에서 연대추정이 가능한 명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 시기에 신라왕실이 왜 이곳에 이러한 명문을 새겼는지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명문에 새겨진 시기의 전후상황을 살펴보고 확인 가능한 인물들의 행적과 관련사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서석곡이 지닌 공간적 성격과 명문의 의미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본 발표의 자료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에서 2014년에 발간한『울산 천전리 암각화』를 기본으로 하여『삼국사기』와『삼국유사』를 참고로 하고자 한다.

Ⅱ. 연대추정이 가능한 명문의 내용

1) 〈178〉



여기에서 주목되는 명문은 王 宮 大等 大兄 書人이다.

왕과 궁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신라의 왕실과 관련된 명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좌우의 폭이 약3m, 상하의 길이가 약1m에 이르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명문은 서석곡에서 연대추정이 가능한 명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514년 지증왕 15년 6월 22일의 기록으로 추정되고 있다.[2] 지증왕은 이 해 7월에 薨하였고 이어서 법흥왕이 즉위하였다.[3] 명문에 새겨진 계사년 6월 22일은 지증왕 서거직전이며 법흥왕 즉위원년이 된다. 지증왕 서거 직전이자 법흥왕의 즉위 직전에 왕실관련의 명문이 이곳에 새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등은 신라의 중앙신료들로서 신라가 부족연맹체에서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종래의 족장층이 골품제나 部制로 편성되면서 정치적으로 대등이라는 관직이 주어진 것이었다. 대등의 자격은 진골을 중심으로 한 고급귀족으로서 귀족회의의 구성원이며 신라 중앙행정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대

2) 일반적으로는 본 명문의 서체를 隷書體로 보아 513년으로 비정하고 있다. 한편 이완우는 2010, 천전리서석의 명문 서풍,『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에서, 573년(진흥왕 34년)으로 보기도 한다. 본 명문은 501년으로 비정하고 있는 포항 중성리비의 서체와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중성리비의 서체는 古隷體로서 신라의 자생적 토속적서체로 글자의 결구가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無定形的인 서예미학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명문은 이러한 중성리비의 서체 서풍과 닮아있다.

3) 『삼국사기』권4, 지증왕 15년 7월조에 '王薨 謚曰智證 新羅謚法 始於此' 라고 하였다.

등은 왕위계승과 폐위, 대외적인 선전포고, 불교의 수용 등을 논의, 결정하였고 국왕의 순행 때에는 왕을 수행하기도 하였다.[4)]

大兄은 고구려의 관명으로 3세기 말부터 나타난다. 본래 兄은 年長者 또는 族長의 의미를 지닌 것인데 고구려가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전환하면서 중앙의 관직체계 안에 편입되어 그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兄에서 大兄 太大兄 皂衣頭大兄 小兄 諸兄 등이 분화되었다. 서석곡의 명문에 고구려의 관등명이 나타나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이 시기에 신라와 고구려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광개토대왕릉비문에 의하면 399년(내물왕 44년)에 백제가 가야와 왜를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하자 고구려가 5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구원해 주었다.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호우에는 '乙卯年 國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 이라는 명문이 있다.[5)] 이는 광개토대왕릉비와 같은 서체이며 이때의 을묘년은 415년(고구려 장수왕3년, 신라 실성왕 14년)이다. 또한 경주의 瑞鳳冢에서 출토된 銀盒에는 '延壽元年 太歲在辛卯 三月中 太王敎造合杅三斤' 이라는 명문이 있다. 연수원년은 451년(장수왕 39년, 눌지왕 35년)이다. 이와 같이 5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쪽을 압박하자 신라는 눌지왕 17년(433년)에 백제와 나제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하였다. 이후 진흥왕 12년(551년)에 백제와 협력하여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공격할 때까지 고구려와 신라는 큰 충돌은 없었다.[6)] 따라서 514년의 본 명문은 신라가 고구려의 선진적인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라는 고구려와 종교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삼국유사』 권3 아도기라조에는,

第十九訥祗王時 沙門墨胡子 自高麗至一善郡

이라 하였다. 이곳에 인용된 我道本碑에 의하면, '我道本高麗人也 母高道寧' 이라고 하였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일반적으로 5세기 초 눌지왕 때 고구려를 통해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천전리 일대는 종교적 聖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명문도 종교, 그중에서도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구려와 일정부분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7)] 夫人輩衆이 大等의 앞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말해주고 있고 이는 뒤에서 살펴 볼 원명과 추명의 '作食人 夫人' 등으로 보아 종교적 의례와 관련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사에서 법흥왕은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로서의 통치체제를 완비한 위치에 있다. 법흥왕 7년(520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8)] 율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17관등과 골품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흥왕 8년에는 梁에 사신을 보냈고[9)] 이 때 梁의 武帝는 好佛의 군주로 이름이 높았다. 이러한 양 무제를 통해 신라왕실에 불교가 전래되었고[10)] 이 즈음에 신라에 사신으로 온 승려 元表를 통해 香과 佛經과 佛像이 왕실에 전래되어 불교수용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흥왕은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법흥왕 14년(527년)에 이차돈의 순교를 거치면서 이

---

4) 이기백, 1962, 「대등고」, 『역사학보』 17 · 18합집.
이영호, 1992, 「신라 귀족회의와 상대등」, 『한국고대사연구』 6, 한국고대사학회.
하일식, 2006, 『집권관료제연구』, 혜안.

5) 허흥식, 『한국금석전문』 1.

6) 『삼국유사』 기이1, 진흥왕조에 의하면, 진흥왕15년(554년) 9월에 백제가 침략하였는데 이는 백제가 신라와 合兵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했을 때 진흥왕이 고구려와 通好하여 백제가 이를 원망하여 침략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라는 고구려를 경계하며 실리를 취하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던 것이다.

7) 천전리에서의 고구려적인 요소는 '大兄' 의 명문 외에도 龍그림이 고구려벽화의 '사신도 龍' 과 관련되고 행렬도는 '약수리벽화의 행렬도' 와 관련하여 보기도 한다.

8) 『삼국사기』 권3 법흥왕 7년 정월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9) 『삼국사기』 권3 법흥왕 8년 遣使於梁貢方物

10) 『삼국유사』 아도기라조에 눌지왕때 양에서 사신으로 승려인 원표를 보냈다고 하였다. 이 때 향과 불경과 불상을 보내왔다고 하였다.

듬해에 佛敎에 대한 국가적 공인이 이루어졌다. 16년에는 殺生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22년에는 興輪寺를 大開하였다.

이와 같이 법흥왕은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통치체제를 구축하면서 그 이념적인 기반을 불교에서 구하였다.[11] 법흥왕은 말년에 승려가 되어 字는 法空이라 하고 법명은 法雲이라 하였으며 諡號는 법흥이 되었다. 이러한 법흥왕의 즉위 직전에 천전리에 왕 궁 대등 대형 등의 명문이 새겨져있다는 것은 법흥왕이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이념체계로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 그 지지기반을 이 지역과 연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2] 고대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이념이 서로 맞물리는 것인데 천전리가 종교적 성지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볼 때 법흥왕의 불교정책과 이 지역이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울주 지역은 일찍부터 불교와 관련이 있었음이 사료에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 권5 朗智乘雲 普賢樹조에 의하면 이 지역에 낭지가 들어와 있었던 것은 법흥왕 14년(527년) 丁未년이라고 하였다.[13] 낭지가 阿曲縣의 靈鷲山에 온 丁未年은 이차돈이 순교한 때이다. 그리고 낭지가 있었던 곳은 '영취산' 이었다. 영취산은 본래 인도의 마가다국 동쪽에 있는 산으로 석가여래가 이곳에서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기 위해 大乘佛經을 강설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영취산이 울주 지역에도 있으며 낭지가 이곳에 온 것이 법흥왕 때라는 것이다. 신라에 아직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울주 지역에는 불국토신앙과 관련된 성격을 지닌 불교승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영취산의 산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인도의 영취산이 이곳에도 있다는 불국토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바위에 글을 새긴다는 것은 영원을 향해 각인하는 것이다. 바위에 새긴 글 자체가 불변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書人' 의 명문을 새긴 것은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본 명문은 왕위교체의 시점에 왕실의 인물이 이곳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영원을 향해 각인시키고 그 자체로 불변의 힘을 지니게 한 것이다. 왕위교체의 시점에 왕실이 이곳에 온 것은 새 왕의 종교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이 지역에서 확고히 하고 그 사실을 바위에 기록하여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본 명문은 법흥왕이 즉위하면서 그의 종교적 이념을 이 지역과의 결연 속에서 확고히 진행하기 위해 천전리 성소의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123〉

이를 일반적으로 '원명' 이라고 한다. 주목되는 명문은 葛文王 覓 遊 始 爲名書石谷 煞 作功人 大舍 作食 壹吉干支 沙干支 作書人 등이다. 원명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14] 본 명문의 乙巳年은 법흥왕 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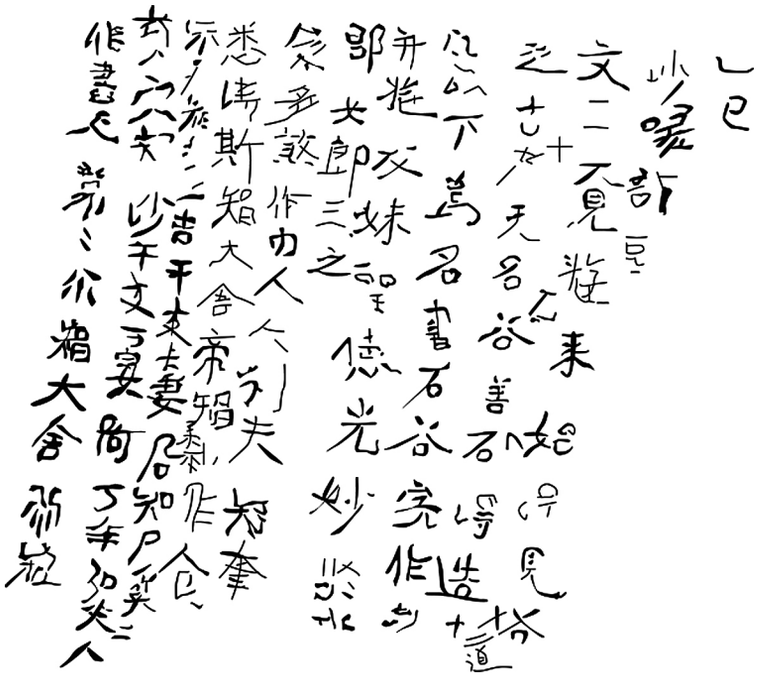
---

11) 이기백, 1978,「삼국시대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한국연구원.

12) 이융조, 2010,「천전리바위그림의 고고학적 의의」,『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아프리카지역의 바위 그림은 '연대와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다' 고 하였다.

13)『삼국유사』권5, 낭지승운보현수조에, '法興王 丁未之歲 始寓足焉' 이라 하였다.

14) 김용선, 1979,「울주 천전리 서석의 명문의 연구」,『역사학보』81, 역사학회.
이문기, 1983,「울주 천전리서석 원 · 추명의 재검토」,『역사교육논집』4,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문경현, 1987,「울주 신라 서석명기의 신검토」,『경북사학』10.
이희관, 1990,「신라 상대 지증왕계의 왕위계승과 박씨왕비족」,『동아연구』2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법흥왕비박씨 보도부인이 딸 지소와 외손 심맥부지를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원, 1993,「신라 중고 금석문연구」,『국사관논총』42, 국사편찬위원회.
武田幸男, 1993,「蔚州 書石における 新羅葛文王一族」,『東方學』85.
김창호, 1995,「울주 천전리 서석에 보이는 신라의 원시신앙문제」,『향토문화』9 · 10합집, 향토문화연구회.
이우태, 1997,「울주 천전리 서석 원명의 재검토」,『국사관논총』78, 국사편찬위원회.
주보돈, 2002,『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김두진, 2005,『금석문을 통한 신라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호, 2007,『고신라 금석문의 연구』, 서경문화사.
박남수, 2008,「울주 천전리 서석명에 나타난 진흥왕의 왕위계승과 입종갈문왕」,『한국사연구』141, 한국사연구회. 42쪽에서, 서석곡유행은 탁부와 사탁부 간에 소속부보다는 나물왕계 공동의 혈연의식을 견고히하며 유대를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김씨왕통의 지속과 풍요를 바라면서 祓禊儀式과 같은 것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525년)에 해당한다. 이 내용에 대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종갈문왕과 그의 누이인 於史鄒女郎이 이곳에 놀러 와서 처음 골짜기를 보고 '書石谷'이라 命名을 하고 글자를 새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놀러왔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뒤의 '추명'을 통해서 보면 이곳에 온 시각은 어두운 새벽이었다. 이곳은 大谷川 상류의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갈문왕과 그 일행이 어두운 새벽에 놀러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곳을 잘 아는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야지만 새벽에 올 수 있는 곳이다. 놀러왔다는 근거가 되는 '遊'는 단순히 노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는 것과도 관련되며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15] 作功人 作食人들이 함께 왔다는 것은 이곳에서 의례를 거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갈문왕은 왕비의 아버지, 왕의 외할아버지, 왕의 아버지, 왕의 동생, 여왕의 배우자가 책봉되었다. 신라 왕족집단의 분화가 촉진되면서 새로운 사회단위로 부각되던 家系의 長이 갈문왕으로 책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눌지왕 이후 부자상속이 확립되면서 왕의 동생을 갈문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는 왕족집단의 분지화가 촉진되면서 김씨 내부의 결속과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갈문왕의 역할은 왕의 행차나 귀족회합 때, 외국사신을 응대하고 접견할 때, 왕을 배종배석하여 발언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갈문왕은 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신라 지배세력 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하였다.[16]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갈문왕이 이곳에 온 것은 법흥왕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覓'은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무엇을 구하러 왔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새벽에 깊은 골짜기에 입종갈문왕이 온 절실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또 신라왕실에서 처음 온 것도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11년 전, 법흥왕의 즉위 직전에 왕실에서 다녀갔음을 알려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입종갈문왕이 새벽에 이곳에 와서 절실하게 구하고자했던 것은 11년 전에 왕실에서 다녀갔다는 내용이 새겨진 명문이 아니었을까. 11년 전에 새겼던 명문은 법흥왕이 즉위 직전에 그의 종교적 이념과 관련하여 이 지역과의 결연을 영원히 각인한 것이었다. 입종갈문왕이 새벽에 와서 이를 보고 확인하고, 이

15) 김창호, 2007, 『고신라 금석문의 연구』, 서경문화사 170쪽에서, 경치 좋은 곳에 왔다기 보다는 신앙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주, 2013, 「신라 중고시기 왕실여성의 칭호-울주 천전리 서석명문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27, 신라사학회, 119쪽에서, 遊에는 수행 뿐 아니라 祭祀儀式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 이기백, 1974, 「신라시대의 갈문왕」,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를 강조하여 '서석곡'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7] 그리고 입종갈문왕이 왔다갔다는 글을 새김으로써 이 지역과의 결연을 한번 더 확인하며 더욱 공고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神과 함께 하는 성소에서 작공인과 작식인의 이름을 새기며 책임과 명예를 걸고 제의를 거행함으로써 이들의 결연관계는 세속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맹약의 관계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 확인함으로써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법흥왕의 불교수용정책이 순조롭게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제의도 거행하였을 것이다.

이차돈의 순교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법흥왕의 불교공인 3년 전의 시점에 입종갈문왕이 이 지역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새벽에 이곳 골짜기에 와서 '서석곡'이라고 命名한 것은 신과 함께하는 성소에서 제의를 거행하며 이 지역인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하며 법흥왕의 불교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전리에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법흥왕 12년 6월 18일 새벽에 입종갈문왕이 서석곡에 다녀간 이후, 법흥왕 14년에는 이차돈이 순교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라의 첫 번째가람인 흥륜사를 草創하였다.[18] 15년에는 드디어 佛法을 공인하였고, 16년에는 殺生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입종갈문왕이 천전리에 다녀간 이후 법흥왕의 불교정책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3) 〈179〉

주목되는 명문은 甲寅 大王寺中 安藏이다. 갑인년은 법흥왕 21년(534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대왕흥륜사를 낙성한 이후의 갑인년으로 보아 594년(진평왕 16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새겨진 대왕사는 진흥왕 때 완공한 대왕흥륜사와 다르게 보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눌지왕(417~458년 재위)때 아도가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도는 천경림에 불사를 창건하여 불교를 일으켜서 나라의 복을 비는 것이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천경림에 세운 사찰이 흥륜사인데 이때는 아직 불교가 공인되기 전이고 다만 왕의 허락을 받은 사찰이었다. 그 후 폐사되었다가 다시 법흥왕14년에 草創하고, 법흥왕 22년 乙卯年에 大開하였다. 이 때 흥륜사는 創寺라고 하지 않고 大開라고 한 것은 이미 대왕사로서 존재하고 있던 사찰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직 흥륜사가 완성되기 이전에도 법흥왕이 말년에 법명을 法雲이라 하고 주석하였던

17) 김현권,「천전리암각화의 행렬도와 고구려벽화-행렬도제작 성격을 중심으로-」,『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서석곡이라 이름한 것은 서주시대의 금문과 유사한 기하문이 석벽 전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이전에 새겨놓은 기하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주목되지만 이는 '文巖'이라고 한 것과 관련되리라 생각한다.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갈문왕이 새벽에 와서 이전에 써 놓은 글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書' 石谷 이라 명명하였다.

18) 『삼국유사』 흥법3, 아도기라조.

곳도 이곳이었다. 그러므로 대왕흥륜사를 완공하기 이전에도 대왕사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명문의 갑인년은 법흥왕 21년(534년)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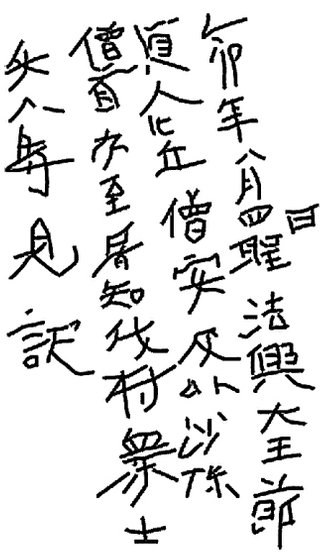
安藏은 진흥왕 11년(550년)에 大書省의 자리에 있던 인물이다.[19] 대서성은 신라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僧官으로서 신라에만 있는 독자적인 명칭인데, 왕의 자문역할이나 왕실의 측근 혹은 고문역할을 한 승관으로 보고 있다. 안장이 대서성의 자리에서 진흥왕의 불교정책에 자문역할을 한 인물이라면 불교관련의 업적과 경륜을 지닌 어느 정도의 연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94년은 안장이 대서성의 직위에 있던 44년 후에 해당하므로 안장의 연령으로 계산해 볼 때 너무 멀다.

따라서 갑인년은 534년 법흥왕 21년이며 이는 흥륜사를 대개하기 1년 전에 해당한다.[20] 이는 흥륜사를 대개하기 전에 대왕사에 있는 안장이 천전리에 왔다는 것이며 이 일과 관련하여 550년에 진흥왕의 자문역할을 하는 대서성에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곳에 '大王寺' 라는 불교사찰의 이름이 새겨져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흥륜사를 대개하기 전에 새로운 종교로서의 불교사찰 명칭을 영원을 향해 각인하도록 성소의 바위에 새겨놓은 신라의 첫 사찰명칭이기 때문이다.

본 명문은 법흥왕 21년, 흥륜사를 대개하기 1년 전에 소규모의 대왕사에 있던 안장이 이곳 천전리에 와서 신라 첫 불교사찰의 명칭을 새기며 법흥왕과 이 지역과의 결연을 확인하고 흥륜사대개의 성공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161〉



주목되는 명문은 聖法興大王節 比丘僧安及以 沙彌僧首乃至 居知伐村衆士이다. 법흥왕시절의 을묘년은 535년, 법흥왕 22년에 해당한다. 이 해는 흥륜사를 大開했던 해이다. 비구승 안급이와 사미승 수내지가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와서 명문들을 보았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21] 본 명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거지벌촌의 士人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지벌촌은 당시의 居知火縣으로 현재의 울주군 언양읍을 가리킨다. 이 명문은 신라 제1가람인 흥륜사를 大開하는 해에 비구승과 사미승이 거지벌촌의 유력인사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과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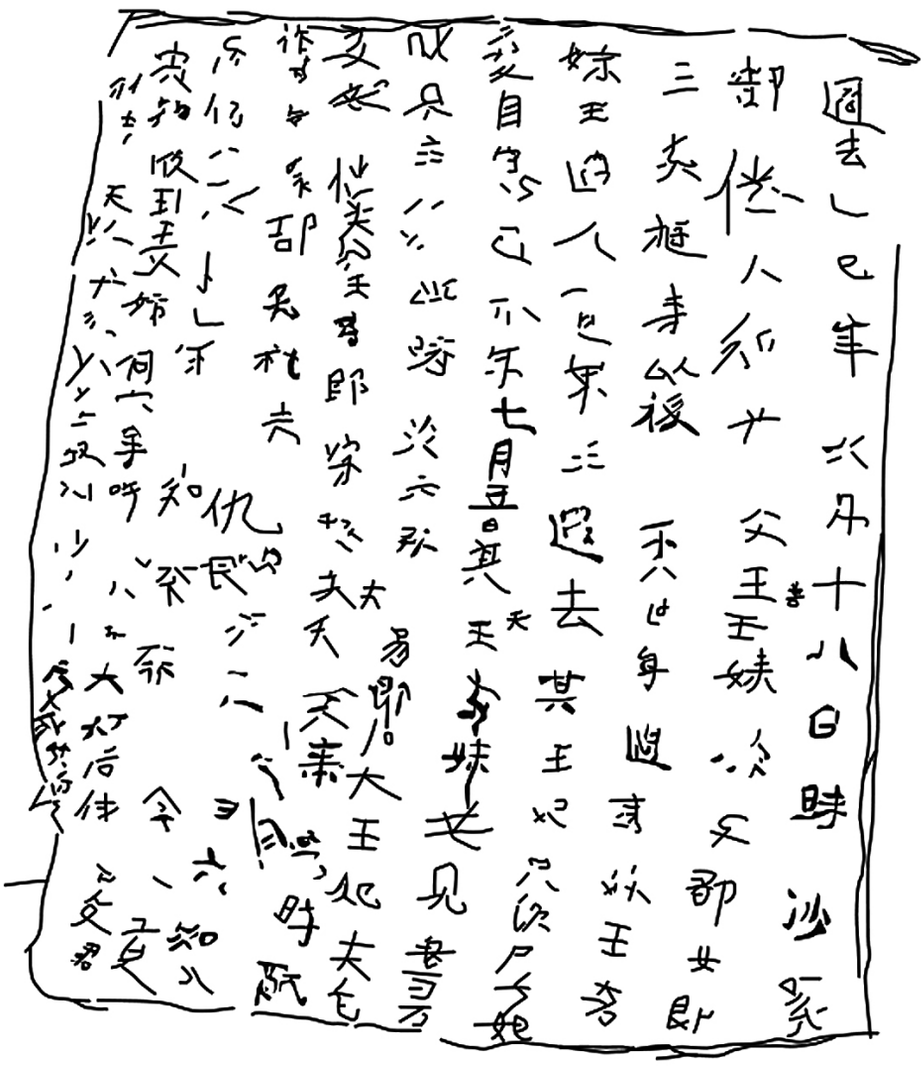
19) 『삼국유사』 의해5, 자장정율조 진흥왕 11년 以安藏法師爲大書省一人.

20) 『삼국사기』 법흥왕 22년조에, '흥륜사大開' 라고 하였다.

21) 비구승과 사미승 그리고 거지벌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전에 기록한 명문을 본 시점은 법흥왕 때의 을묘년이고, 이를 기록한 시점은 법흥왕의 사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흥은 왕의 사후에 올리는 謚號이기 때문이다. 법흥왕은 540년 7월에 薨하였다. 뒤를 이어 즉위한 진흥왕이 흥륜사의 재개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과거의 결연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순조로운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새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聖法興大王節' 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연대기록을 보고 확인하면서 그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인시켜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때에 비구승 사미승 등의 불교사제자의 명칭을 새긴 것도 주목된다.

5) 〈112〉



이를 일반적으로 '추명'이라고 한다. 주목되는 명문은 昧 徙夫知葛文王 只沒尸兮妃 深(麥)夫知 作功臣 등이다. 학계에서는 徙夫知葛文王이 立宗갈문왕이며 只沒尸兮妃는 只召夫人으로 비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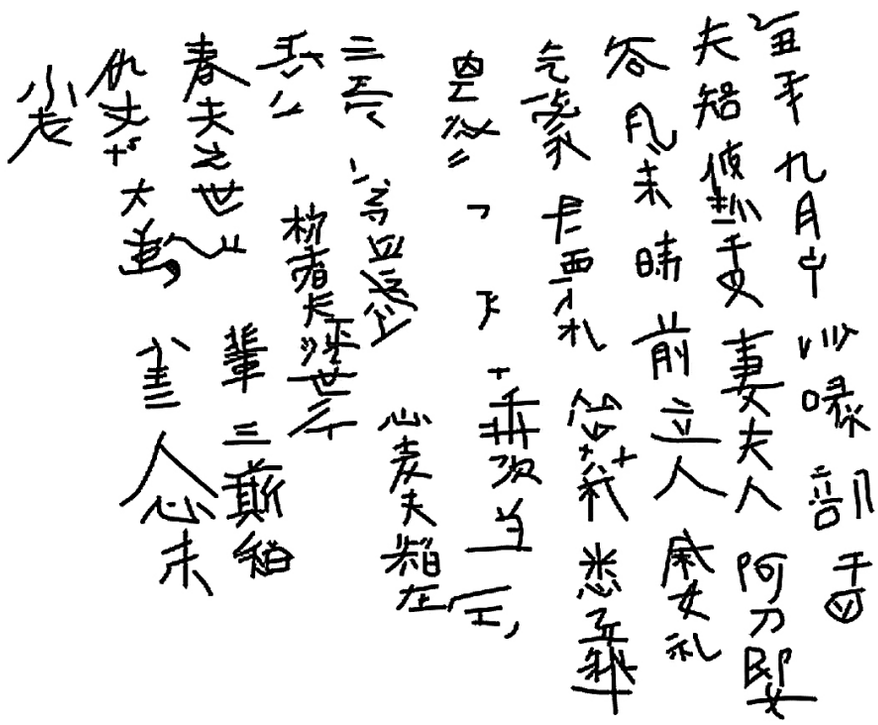
추명의 시점은 己未年 7월 3일이고 이는 법흥왕 26년(539년)에 해당한다. 이는 법흥왕의 서거 1년 전, 진흥왕의 즉위 1년 전이다. 이 시점에 법흥왕의 딸이자 입종갈문왕의 妃인 只召夫人이 주동하여 법흥왕비와 자신의 어린 아들인 진흥왕을 데리고 와서 입종갈문왕을 그리워하며 입종갈문왕과 그의 누이인 어사추녀랑이 함께 보았던 서석을 보려고 골짜기에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비해서 규모가 더 크게 왔다. 〈123〉의 원명에서는 작공인의 관등이 12급이고 한사람이었다. 작식인은 7급과 8급의 부인 2인이다. 그런데 추명에는 '作功臣'으로 기록함으로써 관료적인 성격의 명칭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관등은 8급 9급 11급으로 높아져 있고 인원도 3인으로 늘어나 있다. 작식인은 4급과 9급이며 인원수도 3인으로 늘었다. 원명에 비해 참여인의 관등이 높아졌고 인원수도 많아진 것이다. 그만큼 己未年의 행차는 이전의 乙巳年보다 격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

져 있다. 이는 법흥왕의 불교정책과 흥륜사가람의 大開가 왕실의 권위와 자신감을 고취시켜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본 명문의 주인공은 입종갈문왕의 妃이며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부인이다. 입종갈문왕이 이전에 이루어놓았던 업적인 왕실불교정책의 진전에 대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이후에도 더욱 확고하고 구체적인 지지를 확인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진흥왕도 법흥왕의 불교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었을 것이다.

법흥왕비도 불교에 적극적이었다. 법흥왕이 처음 흥륜사를 일으킬 때 왕비도 역시 永興寺를 창건하였고 법흥왕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깍고 비구니가 되어 법명을 妙法이라 하고 영흥사에 머무르며 돌아가셨다고 한다.[22] 본 명문이 의미하는 것은 법흥왕 12년(525년) 새벽에 입종갈문왕이 이곳에 와서 이 지역과의 결연을 통해 왕실의 불교정책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던 공적을 지소부인이 기리며, 그들의 아들인 진흥왕 때에도 불교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68〉



주목되는 명문은 乙丑年 彼珍干支 前立人 心麥夫智 春夫之世 등이다. 진흥왕과 관련된 명문으로 보아 을축년은 545년(진흥왕 6년)이 된다. 흥륜사가 544년 2월에 낙성되었는데, 그 1년 후에 온 것이다. 彼珍干支는 신라 제4관등인 파진찬으로서 진골신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春夫는 진흥왕대에 활동한 春賦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春賦는 진흥왕26년(565년) 8월에 왕명으로 나가서 국원소경지방을 지켰던 인물이다.[23] 그렇다면 춘부가 활동하던 시기인 진흥왕 6년, 흥륜사를 낙성한 후 이곳 천전리에 진골신분의 부인인 阿刀郎女가 왔고 이때 前立人을 대동하고 춘부등이 함께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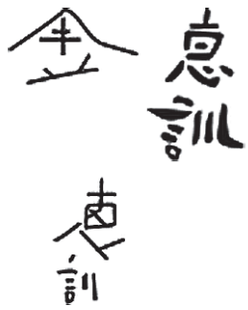
진흥왕이 흥륜사를 완공한 이듬해에 前立人 등을 앞세우는 위세를 갖춘 행차를 공공연하게 펼치며 신라 제1가람의 완공을 경축하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순조로운 사찰운영을 기원하기위해 아도랑녀 등이 이곳에 와서 제의를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

22) 『삼국유사』 원종흥법 염촉멸신조. 『삼국유사』 왕력 제23 법흥왕조에는 '妃 巴刀夫人 出家名 法流 住永興寺' 라고 하였다.

23) 『삼국사기』 권4, 26년 8월 命阿湌春賦 出守國原

7). 〈139〉, 〈105〉



金惠訓 惠訓

천전리에는 혜훈의 이름이 2번이나 새겨져 있다. 그리고 혜훈의 성씨가 김씨임을 알려주고 있다. 혜훈은 황룡사의 3대 주지를 지낸 인물로서 신라 최고의 승관인 國統의 지위에 있었다. 『삼국유사』 권3 황룡사장육조에 의하면,

황룡사의 初主는 眞骨歡喜師, 第2主는 慈藏國統, 다음은 國統惠訓, 다음은 廂律師[24]

라고 하였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년)에 시작하여 17년만인 진흥왕 30년(569년)에 완공하였다. 자장의 활동연대가 590년~658년경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자장 다음의 황룡사 주지였던 혜훈은 7세기 중후반 경에 활동한 인물이다.

국통은 최고의 승관직으로 僧統 또는 寺主라고도 한다. 황룡사의 주지로서 최고의 승관이었던 혜훈은 당대 최고의 승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천전리와 혜훈 그리고 황룡사와 관련하여 생각되는 것은 황룡사의 丈六尊像이 울주 지역과 관련하여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신라 제24대 진흥왕 즉위 14년 계유년 2월에 紫宮을 龍宮 남쪽에 지으려고 하였는데 黃龍이 그곳에 나타나자 바꾸어서 佛寺를 짓고 黃龍寺라고 하였다. 기축년에 이르러 주위에 담을 쌓았고 17년 만에 바야흐로 마쳤다. 오래지 않아서 바다 남쪽에 한 거선이 河曲縣의 絲浦에 와서 정박했다(지금의 蔚州 谷浦이다). 검사하여 보니 첩문에 이르기를 '西竺의 아육왕이 황철 57000근과 황금 30000근을 모아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성하려다가 이루지 못하자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며 축원하기를 인연있는 국토에 도착하여 장육존상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一佛과 二菩薩像의 모양을 같이 실어보냈다. 縣吏가 문서를 갖추어 왕에게 전하니 왕이 使者를 시켜 그 성의 동쪽에 있는 높고 시원한 곳을 卜地하여 동축사를 세우고 그 삼존상을 안치하였다. 금과 철을 서울로 실어와 大建 6년 갑오년(574년, 진흥왕 35년) 3월에 장육존상을 주조하여 잠깐사이에 이룩하였다.[25]

아육왕은 Asoka라고 하는 인도 마우리아왕조의 3대 왕으로서 B.C.272년~232년경에 재위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인도의 남부를 제외한 최초의 통일왕국을 세우고 불교를 보호하며 적극 포교하였다. 이러한 아육왕이 보

24) 『삼국유사』 권3 탑상 황룡사장육조.

25) 『삼국유사』 권3 탑상 황룡사장육조에, 新羅第24 眞興王卽位 14年(553년) 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黃龍寺 至己丑年周圍嗇宇 至十七年 方畢 未幾 海南有一巨舫 來泊於河曲縣之絲浦(今蔚州谷浦也) 撿看有牒文云 西竺 阿育王 聚黃鐵五萬七千斤 黃金三萬分(別傳云 鐵四十萬七千斤 金一千兩 恐誤 或云三萬七千斤) 將鑄釋迦三尊像 未就 載船泛海而祝曰 願到有緣國土 成丈六尊容 并載模樣一佛二菩薩像 縣吏具狀上聞 勅使卜其縣之城東 爽塏之地 創東竺寺 邀安其三尊 輸其金鐵於京師 以大建六年 甲午 三月(寺中記云 癸巳十月十七日) 鑄成丈六尊像 一鼓而就.
이어서 別本에서는, '아육왕이 西竺 大香華國에서 佛滅後 百年에 출생하여 眞身에게 供養하지 못한 것을 恨으로 여겨 金鐵 약간을 거두어서 佛像을 세 번이나 조성하려다가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왕의 태자가 홀로 이일에 참여치 않으므로 그 까닭을 물으니 태자가 아뢰기를 '혼자의 힘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 하였다. 아육왕도 그렇게 여겨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南閻浮提의 16大國과 五百中國과 十千小國 八萬村落을 널리 돌아다녔으나 모두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에 신라에 이르러 眞興王이 文仍林에서 완성하여 모습이 갖추어졌다. 아육왕은 이제야 근심이 없어졌다' 고 하였다.

낸 황금과 철을 실은 배가 800여 년이 지난 570년경에 신라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실제로는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로 선택된 것이 新羅라는 점이다. 둘째 아육왕이 보낸 황금과 황철이 하곡현의 사포 즉 현재의 울주지역에 도착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아육왕이 보낸 삼존상의 모형을 동축사에 안치하였다는 점이다.

신라가 불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후 불국토신앙으로 발전한다. 불국토신앙은 이 땅이 본래 부처의 나라라고 믿는 것이다. 신라에는 前佛時代의 7처가람이 있었고, 황룡사에는 가섭불이 설법을 하고 있었으며, 인도의 아쇼카왕이 만들다 실패한 불상이 불교와 인연 있는 신라에서 드디어 완성했다는 등의 설화를 통해 신라가 본래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였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국토신앙은 낭지의 영취산과 자장의 刹帝利種說, 선덕여왕의 忉利天과 문무왕대의 四天王寺로 이어졌으며 신문왕대 김대성에 의해 佛國寺를 창건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러한 불국토신앙은 전 국민을 정신적으로 통합시키는 구심력이 되어 이후 삼국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신라의 불국토신앙이 진흥왕대에 울주지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황룡사 장육존상의 주조로 현실 속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울주지역은 동천 연암천 진장천 등이 합류하여 울산평야를 형성하였고 이는 침강해안의 만입부에 이루어진 충적평야로서 비옥하여 米作중심의 농업이 행하여졌다. 울주군 두동면은 大谷川 中里川 등이 흘러 주위에 논이 많다. 또한 울주군 농소면 달천리의 달천철장은 이 지역 토산물 중 최고를 자랑하는 철 생산지였다. 또한 이 지역은 야철장이 많아서 이곳에서 풀무질하며 부르는 '불매노래' 도 울주군의 대표적인 민요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울주에 동축사가 있었다. 동축사는 원래 울산시 동구 미포동의 東大山에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소실되어 그 부속암자였던 현재의 동축사가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26] 동축사는 부처의 발상지인 西竺에 대응하는 것으로 '동쪽의 불국토'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의 아육왕이 보낸 황금과 황철을 실은 배가 울주에 도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황룡사에 장육존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은 신라가 불교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증거물이 되었다.[27] 그리고 황룡사 삼존상의 모형이 '동축사' 라는 명칭의 사찰에 안치된 것은 이곳이 서축국의 아육왕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동쪽의 불국토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년) 2월에 시작하여 진흥왕 30년(569년)에 완성하였으며 장육존상은 진흥왕 35년(574년)에 완성하였다. 아육왕이 보낸 많은 양의 황금과 황철이 울주지역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울주지역의 협조로 가능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울주지역은 천혜의 양항으로서 해상교통이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비교적 풍요로웠으며 청동기시대에 대형지석묘를 축조한 세력가가 존재하였고 뛰어난 철 생산지로서의 지역전통을 지니는 곳이다. 이러한 울주지역과의 협조 속에서 만들어진 황룡사의 장육존상은 신라의 국보1호가 되었다. 국보는 국가의 보물로서 국력의 결집을 상징하는 것이다.

후에 고려의 왕이 장차 신라를 정벌하려고 모의하며 말하기를 '신라에 삼보가 있어 범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고 하니, '황룡사장육상과 구층탑과 진평왕의 천사옥대' 라고 하니, 드디어 그 모의를 그쳤다. 이는 周에 九鼎이 있어 楚人이 감히 북방을 엿보지 못하던 것과 같은 류의 것이다.[28]

九鼎은 夏의 시조인 禹王이 만들었다고 하는 9개의 寶鼎으로 '禹貢九州' 라고도 한다. 우왕이 순임금의 명을 받아 황하의 치수에 성공한 후 천하를 9개의 주로 나누고 각 주의 특산물을 진상하게 하여 통치의 자원으로 삼

---

26) 『울산읍지』 권1 佛宇조.

27) 양정석, 2004, 『황룡사의 조영과 왕권』, 서경문화사에서, 진흥왕이 장육존상의 봉안을 위하여 황룡사의 금당을 太極殿 형태로 중건하였는데 이는 北魏式 都城制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王卽佛思想을 통한 왕권강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28) 『삼국유사』 권3 탑상 황룡사구층탑조에, '後高麗王 將謀伐羅 乃曰 新羅有三寶 不可犯也 何謂也 皇龍丈六 并九層塔 與眞平王天賜玉帶 遂寢其謀 周有九鼎 楚人不敢北窺 此之類也' 라고 하였다.

았다. 그러자 우왕의 聖德에 감동한 9주의 수장들이 각주의 진귀한 금속을 모아서 바쳤다. 그러자 우왕은 이를 재료로 하여 9개의 정을 차례로 제작해서 대대로 왕위전승의 寶器로 삼았다. 이후부터 鼎은 국가국통왕위 등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 9정을 소유한다는 것은 천하를 다스릴만한 德業과 功名 및 정통성을 갖추었음을 상징하게 되었다.

신라의 3보는 주나라의 구정과 같이 천하를 다스리는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3보가 건재하는 한 이웃나라에서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였다. 이는 신라의 3보가 신라국가의 국통과 정통성을 상징하며 국력결집의 球心體가 되었기 때문이다. 진흥왕은 국력의 결집을 불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고 울주지역의 협조 속에 인도와 같이 동쪽의 불국을 건설코자 하였다.

아육왕이 보내온 금철로 신라의 첫 국보가 되는 佛像을 만들었다는 것은 법흥왕 이후 추진되어 온 불교정책이 진흥왕 때에 이르러 국민의 정신적 종교적 국가적 결집의 구심체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서천축의 아육왕도 이루지 못한 불교사업을 신라의 진흥왕이 불교와 각별한 인연이 있어 울주지역과의 협조 속에 이룩해냈다는 것이다. 아곡현에서 보내온 철과 황금으로 文仍林에서 국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결집의 원동력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룡사의 주지를 맡았으며 최고의 승관직인 국통의 지위에 있었던 혜훈의 이름이 천전리에 2번이나 새겨져 있는 것은 이 지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만들어졌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곳에 왕명으로 동축사가 건립되었고, 이곳은 신라 불국토신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이 후 황룡사 장육존상은 신라의 국보1호가 되어 신라 국력의 결집을 상징하는 구심체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김혜훈의 역할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본 명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법흥왕대 이후 추진되어 온 왕실의 불교정책이 아곡현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드디어 황룡사 장육존상의 주조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황룡사의 주지를 지낸 혜훈의 이름이 이곳에 두 번이나 새겨진 것은 혜훈과 황룡사, 황룡사와 장육존상, 장육존상과 아곡현의 관계에서 고리로 엮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울주의 동축사는 신라 불국토사상의 구체적인 구현이자 그 상징이며 천전리는 화랑들의 중요한 遊娛地로서 이후 신라가 호국불교로 나아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정신적 종교적 구심점이 되었다.

Ⅲ. 천전리의 공간적 성격

천전리의 바위에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의『울산 천전리 암각화』에 의하면, A면에 표현된 동물상은 총214점으로 사슴과의 우제목이 91점, 고양이과의 식육목이 26점, 어류가 4점, 고래 2점, 조류 2점, 용 4점과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이 천전리에는 산짐승, 물짐승, 바다짐승, 하늘짐승 뿐 아니라 사람얼굴과 상징적인 기하문과 龍도 새겨져 있다. 이 일대는 반구대암각화와 함께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에 걸치는 오랜 시간동안 종교적인 역사가 이어져온 聖所이다. 특히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절벽은 하늘과 산 바위 그리고 물이 만나는 장소이다. 이곳은 제의가 거행된 성소로서 산짐승을 주관하는 山神에 대한 제의, 물짐승과 바다짐승을 주관하는 水神과 海神에 대한 龍王祭儀, 하늘짐승을 주관하는 天神에 대한 제의, 사제자와 사람을 주관하는 조상신에 대한 제의 등이 각 시대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거행되었던 곳이다.[29]

천전리에는 전통신앙의 여러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늘신앙 산신신앙 바위신앙 용왕신앙이 한자리에서 만

29) 송화섭, 1996,「한국 암각화의 신앙의례」,『한국의 암각화』, 역사민속학회. 한길사, 255쪽에서, 암각화는 청동기시대 정착 농경생활을 영위하면서 수호신에 대한 종교의례를 거행한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장명수, 1999,「암각화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선사인들의 신앙사유」,『한국암각화연구』창간호.
서영대,「한국암각화의 신앙과 의례」,『한국암각화연구』11 · 12합집.
이하우, 2011,『한국암각화의 제의성』, 학연문화사.

나는 공간적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30] 다양한 종교들이 만나는 총화적인 聖地인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산신숭배 바위숭배 수신숭배 하늘숭배 조상숭배가 함께 공존할 수 있었다. 이곳은 다양한 전통신앙의 신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이곳을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종교적 경험은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는 문화전통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31]

언양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동해에 면한 우봉리에서 융기문토기편과 마제석기 등이 출토되었고, 울산 황성동유적에서는 다량의 골각기와 獸骨 그리고 골촉이 박힌 고래뼈가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도 172개소에 이른다.[32] 특히 영남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언양지석묘는 상석의 크기가 길이 8.5m, 너비가 5.3m에 이른다. 대곡리와 천전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이 발견되었다.

울산시 중구 다운동유적 7호 주거지에서는 콩 팥 수수 녹두 등 여러 가지 잡곡을 별도로 저장해두었던 저장공간이 발견되어 청동기 전기 후반의 울산에서는 여러 종류의 잡곡을 재배 수확하여 다량 저장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농경생산이 활발하고 농경기술의 진전도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준다. '울산형 주거지론'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독자적인 주거문화로 '溝' 시설의 다양한 분화와 설치사례를 보여주고 있다.[33]

철기시대인 2세기 중엽 이후 삼한시대 후기의 목곽묘에서는 규모가 확대되고, 銅鼎 오리형토기 환두대도 장검 재갈 쇠스랑 쇠삽날 등이 많은 양으로 부장되었다. 대형묘는 주능선에 배치되고 소형묘는 그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대형묘 입지의 우월성이 확인된다. 이는 유력자의 존재 또는 국가성립의 증거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급진적이라 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발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부여계 이주민의 유입과 토착세력과의 융합에 의해 급진적으로 정치체가 성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34] 이러한 유물과 유적은 울주지역 철기문화의 급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울주지역은 신라시대부터 수도인 경주의 문호로서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경남지역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어획고가 높았다. 언양읍성은 경주 울산 밀양 양산과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축조되었다. 울산만은 간만의 차이가 평균 65cm로 작고 주위지형이 천연적인 방파제 구실을 하고 수심이 항상 12m 이상 유지되는 천혜의 양항으로 대형선박의 출입도 가능하다. 천전리 앞을 흐르는 대곡천은 태화강과 합류하여 울산만을 통해 바다로 나아간다. 이러한 자연적 문화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울주지역은 일찍부터 신라 왕실과 긴밀한 연결이 가능했던 지역이다. 천전리는 신석기시대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다양한 종교의 융화가 이루어진 성소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신라 중고시기의 왕실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결집을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

이상으로 활동연대가 추정 가능한 인물과 명문을 살펴본 결과 천전리에는 6세기에서 9세기 경 신라의 왕실중앙관료 승려 등이 중심이 되어 울산지역인들의 안내와 참여 속에서 그들의 전통신앙 성소에서 불교의 흥교와 사찰건립 불상조영 등에 대한 협조와 성취를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산지역민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불국토신앙의 상징인 신라국보 1호가 조영됨으로써 종교적 상징적 국민의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35]

---

30) 장석호, 「메타언어-바위그림의 공간과 제재의 상징성-대곡리암각화를 중심으로-」에서, 대곡리는 '산 물 하늘 지하 지상 천상 우주의 축으로서 타계와의 소통과 융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암각화는 세계간의 경계허물기와 통합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31) 조용진, 2010, 「천전리 얼굴암각화를 그린 사람」, 『천전리암각화 발견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신경회로망의 작동결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얼굴그림은 그리는 이의 자기얼굴이 반영되기 쉽기 때문에 '대곡리 천전리의 얼굴그림은 당시 이 지역에 살던 경상도인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32) 한국문물연구원,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_약보고」, 2013, 07.

33) 전호태, 2004, 「청동기시대 울산의 마을」, 『울산사학』 11집, 울산사학회, 32~36쪽.

34) 권지영, 2004, 「울산지역 삼한시대 유적의 검토-후기로의 전환양상을 중심으로-」, 『울산사학』 11집, 울산사학회, 387쪽.

35) 이성주, 2008, 「고고학자료를 통해 본 울산의 삼한 삼국 통일신라시대 유적」, 『울산의 유적과 유물 : 발굴로 드러난 울산의 역사』, 울산광역시.
장정남, 2002, 「울산지역 신라고분변천과 편년」, 『경주문화연구』 5,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이혜정, 2007, 「한국고대 불교문화와 토착신앙의 융합」,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호, 1962, 「언양 대곡리 寺址의 조사」, 『고고미술』 39, 고고미술동인.
장성운, 2004, 「반고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출처」, 『울주문화』 4집, 울주문화원.

Ⅳ. 맺음말

이상으로 연대추정이 가능한 천전리 서석곡의 명문을 살펴본 결과 울주지역은 신라의 초기 불교수용 시기에 왕실과 긴밀한 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전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지나면서 각 시대에 따라 절실한 필요에 의해 종교적 신앙의례가 거행되었던 성소이다. 연대추정이 가능한 초기의 명문은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집중되어 있다.

〈178〉의 명문은 법흥왕 즉위 1개월 전의 것으로서 이곳이 종교적인 성소임을 볼 때 법흥왕의 불교정책과 관련하여 이 지역과의 연대를 각인시켜 놓은 것으로 보았다. 〈123〉은 법흥왕 12년 6월 8일 새벽에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갈문왕이 현지인의 안내를 받으며 와서 법흥왕 즉위년의 명문을 보고 '서석곡'이라 명명하고, 자신들이 다녀간 기록도 새기도록 하였다. 이는 이 지역과의 연대를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후 법흥왕 15년에 드디어 불교공인을 이끌어 냈고, 16년에는 살생을 금지하였다. 〈179〉는 법흥왕 21년의 것으로 흥륜사를 大開하기 1년 전의 것이었다. 불교승려인 안장이 이곳에 와서 이전의 명문들을 확인하며 이 지역과의 연대를 공고히하며 다녀갔음을 새겨놓았다. 〈161〉은 법흥왕 22년의 것으로 이 때는 흥륜사를 大開한 해이다. 거지벌촌은 언양의 옛이름인데 이 지역 유력인사들의 참여 속에 불교승려들이 와서 흥륜사의 대개와 관련한 제의를 거행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112〉는 진흥왕이 즉위하기 1년 전에 진흥왕의 어머니로서 섭정을 하게 되는 지소부인과 법흥왕비인 보도부인 그리고 어린 진흥왕이 왔다는 기록이다. 이 시기에 왕실의 주요 인물들이 거창한 규모로 행차한 것은 입종갈문왕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기리면서 이후에도 법흥왕의 불교정책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 〈68〉은 흥륜사를 낙성한 1년 후에 대규모의 위세로 와서 경축하며 기록한 것이다. 〈139〉와 〈105〉는 같은 인물인 김혜훈의 이름을 2번 새긴 것이었다. 혜훈은 황룡사의 3대 주지를 지낸 인물로서 최고의 승관인 국통의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혜훈이 이곳에 2번이나 새겨져 있는 것은 황룡사의 장육존상 주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혜훈 황룡사 진흥왕 울주가 긴밀히 연결된 것은 장육존상을 고리로 한 불국토신앙이었다. 그리하여 울주의 동축사에는 아육왕이 보낸 삼존상의 모형이 안치되고, 아육왕이 보낸 황금과 황철은 울주의 사포에 도착하여 경주 문잉림에 보내져서 불국토의 상징이 현실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울주의 동축사와 관련된 불국토신앙은 이후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정신적 구심이 되었다. 이러한 불국토신앙이 울주에서 가능하였던 것은 선사시대 이래로 천전리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이어왔던 역사적 성소로서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법흥왕과 진흥왕은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통치국가의 수립을 위해서 그 이념적 기반이 되는 불교를 통하여 국민을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실이 선택한 곳이 울주지역의 천전리 聖所였다. 그리하여 이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신라 제1가람인 흥륜사가 창건되었으며, 신라 국보1호인 황룡사 장육존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후의 불국토신앙은 호국불교신앙으로 발전하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정신적 구심이 되었다. 그 시작이 울주지역의 천전리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이곳에 새겨진 명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언양읍지』
서영대, 2001, 「울산지역의 사찰설화」, 『울산연구』 3.
전호태, 2001, 「울산지역의 신라 불교유적의 현황과 과제」, 『울산연구』 3.